

반도체 연구성과 세계 1위

내년 ISSCC 논문 채택수 KAIST 9편 '최다'

정부지원 미미...관심 필요

한국 KAIST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국제학회에서 전세계 기업과 대학을 통틀어 참여기관으로는 첫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우수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만 등 경쟁국들이 강력한 정부지원을 무기로 빠르게 기술력을 쌓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고체회로학술회의(ISSCC) 2011년 위원회(의장 아난사 찬드라카산)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계 '반도체 올림픽'인 국제고체회로학술회의가 2011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호텔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전자기기(Electronics for Healthy Living)'를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ISSCC에서는 KAIST가 전체 참여 기관 중 가장 많은 논문 채택수(9개)를 기록, 처음으로 한국의 참여기관이 단독 1위를 차지하게 됐다.

2011년 ISSCC에는 전세계에서 699편의 논문이 제출됐

으며 이 중 211편이 채택됐다. 한국은 카이스트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페어차일드반도체 등의 기업이 제출한 총 22편의 논문이 채택됐다.

2011년 ISSCC의 동북아시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희준 카이스트 교수는 "그동안 인텔·IBM 등 미국 기관들이 제출한 논문이 가장 많이 채택됐으나 아시아 기관이 전세계에서 최다 채택 논문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2011년 ISSCC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는 물론 비메모리 분야의 논문도 각 부문별로 고르게 채택돼 고무적"이라며 "논문 발표 후 2~3년 뒤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만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ISSCC에는 미국 77건, 일본 24건, 한국 22건, 네덜란드 17건, 대만 14건의 순으로 논문이 채택됐다. 반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약해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백옥진기자 withok@**